

## 追慕辭

古下 先生님, 來日은 先生님의 제 120回 生辰日입니다. 來일이 土曜日이라서 오늘 追慕式을 舉行하오니 寬恕해 주시옵소서. 例年과 같이 今年에도 先生님을 崇慕하는 많은 人士들이 先生님의 幽宅 앞에 모여 情을 나누고 있습니다.

先生님, 올해는 참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先生님께서 誕辰하신지 120周年이 되는 해이고, 庚戌國恥 100周年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安重根義士 殉國 100周年이기도 하고 東亞日報가 創刊 90周年을 맞이한 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先生님께서 이 世上을 下直하신지 65年이 되는 해인데 저는 先生님의 殉國 65周年이 되는 해라고 定義하고 있습니다. 6·25 戰爭 발발 60주년 이 되는 해이고 4·19 革命 50周年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고 보니 올해에는 自然스럽게 우리나라의 歷史와 世界의 歷史를 새삼스럽게 되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先生님이 達成하신 偉大한 일들과 계획하셨던 國家大事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되기도 합니다. 先生님 우리들에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견디어 내고 어떤 意味에서는 奇蹟과도 같은 發展을 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先生님의 德分이고 先生님께서 提示해주신 建國理念이 그 바탕이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先生님이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先生님, 아직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世上에는 潤氣가 흐르지 않고, 메마르고 乾燥한 部分이 많다고 하니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全世界의 여기저기서 發生하는 自然의 異變에 놀라게 되는가 하면 지난 3月 26日에는 白翎島 인근해상에서 哨戒艦 天安艦이 沈沒하는 事件이 發生하여 世人들을 놀라게 하고 더욱 世上을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先生님, 우리들은 先生님의 뜻을 받들어 決코 좌절하거나 落膽하지 않겠습니다. 希望과 挑戰精神을 發揮해서 기어코 目標를 達成하고 말 것입니다. 今年 11月에는 G20 頂上會議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어 있으며, 原電輸出 등 굵직굵직한 일들로 國格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4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 1차 核安保頂上會談에는 李明博 大統領을 비롯 47개국 頂上和 3개 國際·地域機構대표들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만장일치로 차기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開催하기로 결정하여 우리들에게 興奮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分野에서 先生님께서 強調하시던 自立精神과 愛國精神을 마음껏 發揮할 수 있는 機會를 맞이했다고 믿습니다.

先生님께서 기뻐하실만한 事實을 몇 가지만 더 報告 올리겠습니다. 先生님께서 그렇게도 아끼시고 精熱을 쏟으시던 東亞日報가 지난 4月 1日 90周年 生日을 맞아 金學俊고문과 金載昊사장 體制가 先生님의 뜻을 이어 받아 이 세상을 밝혀온 90년을 자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담양에서는 정부의 협조로 후생들을 위한 근대역사교육장소가 될 아담한 고하 기념관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逝去하신 서울 苑西洞 74-2번지 古宅은 서울시와 文化財 當국에서 文化財로 지정하여 保存할 것을 검토 중이고, 내년도 先生님 誕辰日에 즈음하여 선생님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모시기로 하는 신청을 國家報勳處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많았고 쓰라렸던 時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大韓民國은 世界

가 우러러보는 여러 가지 結實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先生님의 遠大하고 崇高한 理念의 德分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先生님이 그리워집니다.

先生님, 오늘은 尊敬하는 李基秀 高麗大學校총장께서 先生님의 略傳을 奉讀해 주셨습니다. 略傳을 들을 때마다 새삼스럽게 先生님의 偉大하심을 實感하게 됩니다. 또한 李熙範 서울남부 보훈지청장님과 光復會長님께서도 追慕辭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朴贊郁 서울大 政治學科 교수가「古下先生の 自由民主主義 理想과 그 현재적 의의」라는 題目으로 追慕講演을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先生님의 思想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作用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感謝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長孫이신 宋相現 박사는 國際刑事裁判所長의 重責을 맡고 世界 여기저기를 뛰어 다니면서 世界の 正義와 平和를 위해 努力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아무리 바쁜 日程 중에서도 長孫으로서의 責任을 다하고 있으며 萬人들에게 感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宋博士의 所管事項이 世界 여러 나라에서 發生하고 있습니다만 該博한 知識과 能爛한 手段으로 全世界人의 喝采를 받고 있으며 우리 國威를 宣揚하는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끝으로 先生님에 대한 人物評 중에서 先生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시던 鄭寅普 선생의 글의 일부를 紹介합니다.

"古下가 日帝의 暗黑時代에 不屈의 精神으로 民族을 이끌고, 民族에게 希望과 빛을 주어 갈 길을 밝힌 공로는 壬亂時의 忠武公의 공적에 비길 수 있다. 壬辰倭亂시에는 無力하나마 뒷일을 보살필 政府가 있었지만 先生은 나라가 亡한 후에 오직 民族을 믿고, 民族에 대한 信念과 使命感으로 인생을 獻身했다. 수없이 많은 어려운 고비에도 고결한 知德과 卓越한 判斷力으로 이를 헤쳐나가고, 끊임없는 유혹과 핼에도 빠지지 않은 獨야청청의 一生이었다."

鄭寅普先生의 말씀대로 日帝強占期에 先生님께서 處해 계시던 環境은 참으로 悲慘했었다고 思料됩니다. 이제 大韓民國은 내로라하는 나라 隊列에 끼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先生님의 德分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나 나라나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의 信念과 不屈의 精神을 간직한다면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先生님, 우리들은 先生님의 高尚한 獨立精神과 挑戰精神을 받들어 決코 先生님께서 失望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平安하게 보내시기를 祝願하면서 追慕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10年 5月 7日

古下先生記念事業會理事長

權 彝 赫